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무엇 12월은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는 달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12월의 이 아침 우리 천만 군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곁출하신분, 세기가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과 고결한 덕망으로 한평생을 수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불타는 충정으로 심장을 뚫인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승리의 한결만을 출달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던가.

우리의 12월은 결코 그리움만을 불러오는 달이 아니다. 아버지장군님을 목매며 부르며 몸부림치던 이 나라 천만군민을 산악같이 불러일으켜 장군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에 이르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헌신과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절세위인의 고결한 충정과 헌신으로 엮어지고 열화같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숭고한 자유자유의를 더듬으며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온 나라에 지퍼 주신 유훈관철전의 불길, 그 거대한 열풍속에 휘아오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광휘로운 미래를 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활용하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걸어온 지난 4년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지켜 온 세월이었고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 온 충정의 나날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변들이 새로운 주제 100년대를 빛내며 력사에 금문자로 새겨졌던가. 인민을 위한 열마나 희한한 창조물들이 조국땅 곳곳마다에 우뚝우뚝 솟아났던가. 위대한 력사를 체험하는 남다른 행운을 지니고 시대를 빛내어온 우리 모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시시야말로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며 장군님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 앞장에서 헌신해오신 위대한 기수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혁명의 성전 백두산에서 탄생하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조선혁명과 인류사주위업을 백승으로 이끄시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땅 그 어디에나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이 뜨겁게 호르고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땅전체가 그대로 장군님의 혁명사적지와 같다고 경경에 넘쳐 말하는것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제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길을 밝혀주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교과서인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하며 그러면 만사가 잘되어나간다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나 뜻밖에 우리결을 떠나신 바로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눈물겨운 말씀, **«오늘 우리앞에는 그 어떤 천지공파**

가 닥쳐와도 장군님의 혁명유산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며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무조건고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런 때 순간이라도 맥을 놓고 주저앉았으면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충기차게 전진시키나갈수 없다. ...

그해도 저물어가는 마지막날인 12월 31일에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버지장군님을 모시지 못하고 새해를 맞게 되는 비뚤한 심정으로 눈물을 견잡지 못하는 일군들에게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러는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 지금이 바로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 주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1mm의 편차도 없이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말라.»**

자신께서는 아버지장군님의 명전에서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겠다는것을 맹세하였다고 우리 원수님 그처럼 절절히 말씀하시던 때사는 다시금 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야 가자는 친필서한으로 군대와 인민을 수령님의 유훈관철로 불러일으키고 끊임없는 선군정장으로 수령명생위업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아버지장군님.

제국주의자들의 더욱 악랄해지는 고립압박책동과 우리의 앞길을 막기

위해 음모양모로 날뛰는 온갖 적대세력과 대결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꺼질줄 모르는 불길마냥 자리잡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이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구현하여 혁명위업을 이끌어오신것처럼 수령님들께서 넘겨주신 혁명의 계주봉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실 투철한 자각과 맹세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것을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내세우시며 주제혁명위업완성의 기본진로를 명시하시였으며 발표하시신 한전전건의 로작들에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짙게 새겨져있었다. 어느 단위를 찾았시여도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유훈을 더욱 찬란히 꽃피울수 있게 하겠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인민민족에게 계시면서도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의 사향을 더듬고 없이 훌륭히 실현해나가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므로 그토록 소중히 새겨져 있기때문이라.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영도사적이 깃들어있는 어느 한 공장을 찾았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나간 공장에 혁명사적교육장도 꾸리지 않은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문제라고,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심장같이 새기 시켜왔다고, 힘을 내라고 하시며 우리 군인들을 피눈물의 언덕에서

일으켜세워주시분도, 땀뻘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서 평양민속공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아버지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군인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극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인민극장은 아버지장군님께서 10여년전부터 구상해오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특별히 관심하시던 대상이라고, 극장이 훌륭히 일떠서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극장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류경원, 인민외빙상장, 통라인민유원지, 평양선원 유선중앙연구소, 김정성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소... **«이 모든 창조물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남겨오신것은 바로 그 하나하나에 아버지장군님의 념원과 사랑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훌륭히 실현해나가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므로 그토록 소중히 새겨져 있기때문이라.»**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영도사적이 깃들어있는 어느 한 공장을 찾았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나간 공장에 혁명사적교육장도 꾸리지 않은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문제라고,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심장같이 새기 시켜왔다고, 힘을 내라고 하시며 우리 군인들을 피눈물의 언덕에서

가 자신께서 돌아보신 다른 공장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격찬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문제를 주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고 인민들이 당정책의 실질적인 령을 보고있으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나오고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위들에서는 패배주의자의 한숨소리만 울려나오고 조건을 보장해주어도 알아듣지못한단 하나라는것이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이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수 있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수도 있다. 하지만 노력과 자재, 자금, 설비를 따지기 전에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라는 문제를 앞에 놓고 모든 사업을 해나가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관철하고 강성번영도 이룩할수 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토록 마음쓰신것이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보시였더라면, 이것은 우리 원수님께서 기쁘실 때마다 자주 하시신 말씀이다.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천지개벽된 평양시 자동차역 장천남제전현동농장을 돌아보시려면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찾아보시고 장천남제전현동농장을 보고드리겠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너무 기쁘게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그리움의 무게가 어려온다. 김조성전지관차련합기업소의 드넓은 구내를 거니

라면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행복 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 쓰시며 낮이나 밤이나 열차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 심정으로 철도를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자고, 자신께서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밀어주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그이의 음성이 들려와 눈곱 뜨겁게 젖어든다.

그 숭고한 충정의 모범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모두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으로 이끌고계신다.

지난 10월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늘 비오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것은 철의 질리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라는것을 심장에 쏘아박고 투쟁하여야 한다. ...

아버지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은 곧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러는것은 천만의 심장에 간직된 불멸의 철리이다. **«우리모두 12월의 피눈물의 언덕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네 다진 맹세를 더욱 굳게 지켜 나가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

본사기자 백영미

어버이장군님께서 보시였다면 영광의 그날에 살리

지난 4년동안 놀이도 못아오르고 더욱더 강대해진 우리 조국이다. 10년 달잡이로 굶이친 조국의 한해한해에 못아오른 기뻐비적창조물들은 그 열마이던가. 편이여 일어난 자랑스러운 사변 때마다 인민은 가슴뜨겁게 들을수 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보시였다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시고 또 하신 그 말씀들이 시대의 목소리로 메아리쳐와 산악같이 분발해나선 천만군민이었다.

최상의 경의

세해전 12월 강산에 넘치던 감격과 환희를 잊을수 없다. 온 나라를 떨칠분위기에 휩싸이게 했던 력사의 그날을 돌이켜볼 때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을 탑재한 운반로켓트「은하-3」이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만리장공으로 날아오르던 장쾌한 순간이 떠오르고 성공의 회색속에 만세를 부르던 우리의 파락자, 기술자들의 모습이 방불하게 언겨진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더욱더 사무쳐오는 12월에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승리의 보고를 드리던 위상발사자들의 격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으랴.

기쁨과 아쉬움

즐거울 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라면 아쉬움은 서운할 때 느끼게 되는 마음속의 한가닥 감정이다.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지 윤희유공장을 찾으신 것이였다.

현대적인 공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방에는 따뜻한 미소가 비껴호르고있었다. **«하나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크나큰 아쉬움이 자리 잡고있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에 의하여 탄생한 공장, **«언제나 장군님생각»**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것은 장군님의 생생의 념원을 꽃피우는 사업일 동시에 장군님의 눈으신 권위를 보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민이 말씀하시였다.

현제나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자나깨나 아버지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이 땅위에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폭을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장군님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다.

아쉬움

이이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커갈수록 끝없는 아쉬움이 뜨는것이다. 주제 103(2014)년 8월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겪으신 고생과 맞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진 이 공장에 와보니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께 한번도 보였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빈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때 일군들의 가슴에는 열마나 뜨거웠듯이 찡찡해왔었다.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우리 원수님의 가슴속에 더욱 사무쳐 온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었다.»**

언제나 장군님생각

지난 10월 현대화된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신 것이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준다. **«평양메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던 공장중의 하나이라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고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오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걸리신 그 음성.»**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날도 매일도 영원히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 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장원님»**

생각도 깊어지는 12월이다. **«오늘도 출근하여 공장을 돌아보느라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사무쳐와 발걸음을 쉬이 옮길수 없었다. 우리 식으로 현대화된 본보기공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갖가지 영양가 높고 맛 좋은 식품이 쏟아지는것을 볼수 록 마음은 영원히 잊지 못할 영광의 그날에도 달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한생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며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공장을 또 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새 모습을 펼친 우리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던가.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일터답게 면모를 완전히 일신한 멋쟁이공장, 우리가 결심하면 못해내지는것이었다는것을 확증해주는 공장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신 미소에 온 공장이 더욱 밝아지는듯싶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였던 주제90(2001)년 7월 8일을 잊지 못할것이다. **«어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신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한해의 수많은 날들중에서 바로 그날 우리 공장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우유충합가공설비를 점차 현대적인것으로 개조하도록 하고 공우유뿐 아니라 애기젖가루, 영양안가우유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도 일일이 다 세워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우리 공장이 그들이 아주 좋아하셨기라고, 그들에게 공우유를 떨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먹어주는것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잊을수 없다고 하시며 우리들이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음성을 나는 잊지 못한다.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우유 생산정상화문제는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었다. 그**

것은 곧 한평생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가는 숭고한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정녕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우리 공장의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관철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온 나라에 아이들의 밝고 명명한 웃음소리가 차넘치도록 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가겠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기사장 차성철»**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12월의 하늘가에 올리는 백두청춘들의 맹세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퍼올릴 천만군민의 맹세가 강산에 굽어치는 12월이다.

우리 혁명의 성지 백두대지에 백두산 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으로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 발전소.

뜻깊은 올해에 아버지장군님의 유훈관철의 우렁찬 합성을 백두대지에서 자랑스럽게 떠날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지금 장군님에 대한 헌없는 그리움이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청년사상, 미래사상이 응축되어있는 우리 당의 청년중심시대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굳게 믿고 아버지장군님의 유훈관철투쟁을 위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시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박력으로 하여 아직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때였다.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나 강재보강이 따라서 부족하였고 백두산 영웅청년들이 한해하고 철반이상은 연세공사를 할수 없었다.

하지만 김일성사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펴며 휘날리며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으로 용약 달려온 열혈의 백두청춘들의 마음속에는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혁명열, 투쟁열이 열백배로 더해졌으니

그것은 아버지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때문이었다.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탄원한 청년돌격대원들모두에게 믿음어린 과업장을 안겨주시고 사랑의 특별비행기에 실어 북방의 추위에도 끄떡없을 두툼한 솜옷까지 보내주신 친아버비의 사랑을 그들이 어찌 잊을수 있겠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전소건설현황을 알아보시고 나라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건설자재와 물자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도 몸소 세워주시고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인민군대나 내각에 맡겨줄수 있는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셨던 그 과정을 통하여 주체혁명의 시대, 선군시대의 주인공들로 자라날 우리 청년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자는 내내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여러차례 전달받았을 때마다 백두청춘들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아버지장군님을 완공된 발전소에 모실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자, 오직 이 일념으로 단련되고 단련된 백두청춘들은 자라날 나날과 시련을 뚫고나갔다. 천수지구의 산업을 가로지르며 만연한 번영을 쫓았고 물길굴공사장마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워나갔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99(2010)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로 이곳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오시었다.

아버지장군님의 추위가 수그러들지 않은 산세험한 경로를 불편하신 몸으로 넘어오시어 비약의 불바람이 휘몰아치는 건설장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 수년세월 자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서자

◇ 당창건 70돐을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데 정치추진으로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올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인 자랑찬 한해이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갖들어는 단위들에서 장군님의 유훈관철이 더욱 드 세차게 벌어져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우리 농장이 올해농사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는 비결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힘찬 투쟁을 벌인데 있습니다.》

이것은 통천군 신암협동농장 초급당일군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그끈하게 갖춘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며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천지개벽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대비야, 대혁신의 길로 출발을치고있는 령도업적단위들마다에서 이런 한결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서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서는것은 이 단위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며 웅대한 본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의 기본사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는것이다.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의 당사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로 지향되고 복종되어야 하며 사업성과도 여기에서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훌륭한 성과와 첫걸음

수용발전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모든 일에서 첫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 담겨진 말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는 현실에서 첫시작을 잘 때 성과와 거두고있는 단위들을 많이 찾아보게 된다. 수용발전소도 바로 그런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발전소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의 첫걸음을 잘 내걸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거둔 커다란 성과와 실증해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은 학습을 통하여 사상정신적양성을 쌓고 혁명의 사상정신적양성을 얻는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은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부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다시금 깊이 연구학습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군들부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으로 무장시킨 다음 초급당비서 리순철, 초급당부비서 조준일동무들을 비롯한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전력생산자들의 가슴마다에 자기 단위들에서 관철해나가야 할 수령님들의 유훈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유훈관철전의 첫걸음으로 정하고 이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당원들과 전력생산자들이 환히 깨들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

사과꽃 피워놓고 아리면 또 오실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짝 지어있었습니다.》

그리움을 불러온 네번재의 사과꽃 피워놓고 아리면 또 오실가고 노래부르며 원홍땅에 레넌이 보기 드문 과일작황을 마련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삼가 우리러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뢰었다.

(아버지장군님, 저희들은 올해에 원홍땅이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풍을 안아왔습니다.)

이날을 위하여, 인민들의 행복찬 웃음과 희망찬 태양을 위해 바치오신 우리 장군님의

가치까지의 하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하얀 눈송이가 내리던 며칠전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자애로 새겨져있는 중구역 만수동에서 사는 심동수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살림집이라고 씌여있는 현판에서 나는 눈길을 땀수 없었다. 이유하여 심동수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서니 눈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며은 가족이 있지 못할 그날을 감회깊이 추억하고있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셋더러만 제일먼저 찾아오셨을것이라고, 그래서 장군님을 대신하여 자신께서 직접 나와보고생각하고있었다고 하시며 새집을 들을 한 집에 성향을 가지고가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

우리 원수님 다녀가신 집

듣는 나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 들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부리신 만복의 씨앗을 알찬 열매로 바꾸어주시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신 현의의 발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은하과학자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이때문에 자신께서도 성향을 가지고있었다. 장군님께서도 새집을 축하하러 가실 때에는 원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셨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이때문에 자신께서도 성향을 가지고있었다. 장군님께서도 새집을 축하하러 가실 때에는 원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셨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파학자거리를 비롯하여 내 나라 방방곡곡 찾으신 공경마다, 초소마다, 집집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체취를 그대로 안고 현지지도의 자욱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

그 누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소중히 자리잡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 그이께서는 이 땅 그 어디서나 우리의 심장을 불태워주시며 사회주의만복이 넘쳐나는 행복의 땅 마루에서 우리를 부르고계신다.

무릇 그리움은 지나간 세월의 추억이라 하였다. 그 추억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심장에 남아있는지 사람됨이여, 굳이 묻지 마시라.

경애하는 원수님 수놓아가시는 인민사랑의 서사시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련면히 이어지고있으니 정병 저 현판은 한가정의 현판만이 아닌 장군님과 원수님께서 함께 돌보시는 사회주의의 현판이 아니라, 신

위대한 장군님 념원 우리 당 손길아래 눈부신 현실로 꽃피어나다



평양 어린이 식료품공장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평양매기공장

백두산영웅청년 1호발전소 연제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대결의 자세와 립장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망상가들의 부질없는 구걸놀음

얼마전 판문점에서 북남사이의 실무적 협의가 진행되고 그 결과 제 1차 북남당국 회담을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는 은 겨례에 다시금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자게 우리 겨례 누구나 6.15 통일시대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그 격정의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와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합시다.》

북과 남은 온 겨례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과거와 대담하게 결별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한다.

남은 대결관념을 털어버리는것은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례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지지도 70년이 되었는 나라이의 분별로 인적, 물적자원이 헛되이 소모되고 동족대결로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민족의 분별이 이 땅에 참혹한 학살의 재난이 들쳐위질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북과 남사이의 반목질시하고 대결합격이 아니라 화해하고 단합하여 판계개선을 이룩하고 통일에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대결일변도적인 판점과 립장은 민족의

운명은 인종에도 없는 반민족적인 사고 방식의 산물로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과 남은 한민족을 나눈 동족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별로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동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덮어놓고 적대시하면서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의 파국을 피할수 없다.

현 북남관계의 비극적현실은 결코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 남조선당국자들의 골수까지 짊 들어차있는 동족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 체질적 인적대판념이 초래한 필연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저들이 《대북정책》으로 내는 《실패프로세스》가 《무엇을 할것이나.》가 아니라 《어떻게 할것이나.》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라니,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니 하며 이단적기 《북에 끌려다니 북남관계》를 비호하겠다고 떠들었다. 남과 그 것이 《원칙》이고 《신뢰의 기초》라고 못박았다.

누가 누구를 끌고가겠다는 이기부터가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의 발로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례에게 민족의 남은 앞날에 대한 희망과 자주통일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 6.15통일시대의 북남관계가 그 누구에게 끌려다니 《비정상적》인것으로 외국의관건이야말로 비정상적인 현 북남관계파괴의 근원이다.

한민족을 나눈 동족을 《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상대방의 제도를 해치는 《제체통일》로 보고 대하는 그들의 대결일변도적인 판점과 립장, 베풀어진 시각은 우리에게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

상, 끊임없는 도발소동에 이어졌다. 반공화국고립압살을 노린 핵소동과 변질나게 벌어진 우리의 사상과 제도,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는 반공화국베라살로, 《인권》모략과 북침핵선제타격을 노린 외세의 전쟁불장난소동들은 북남판계를 최악의 위기속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이 환고한 대결관념에 포로되어있는 한 아무리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도 그것은 헛수고로 될것이다. 북과 남이 판계개선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자면 남조선당국자들이 채택리념의 밑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점, 새로운 립장으로 동족을 대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는것이 급선무이다.

남조선당국이 남은 대결관념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나선다면 북남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것이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기쁜문제들이 해결되게 될것이다.

대화에 대한 자세와 립장을 바로가지고 북남관계의 실제 성과를 내는 건설적인 대화로 전환시키겠다는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북남대화는 응당 쌍방이 불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신뢰를 다지며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대화상대방에 대해 의심부터 앞세우며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것은 진실로 대화를 바라는 자세가 아니다. 상대방의 성의를 색안경을 끼고 내세우나 이러저러한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거나 북남대화를 또 하나의 대결마당으로 될수밖에 없다. 지난 시기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가 공회

을 거듭하며 목적을 꺾다가 파탄되고 만것도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인 남북회담판행》을 운운하며 사소한 문제들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저들의 부당한 주장만 고집한것과 떼어놓고 볼수 없다.

북남대화는 소모적인 논쟁의 과정이 아니라 명실공히 판계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의의있는 대화, 건설적인 대화로 되어야 한다.

6.15 통일시대에 북과 남은 대화와 관련하여 체면이나 형식보다 조국통일이라는 데를 앞세우며 민족적정지에서의 결성임을 극박하면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면적성가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립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현 북남관계문제에 아무리 복잡하고 착잡하게 얽혀있다 해도 온 겨례의 기대에 보답하려는 의지를 안고 민족공동의 리익의 길에서 흥분을 터놓고 제기된 현안들을 현실화되게 론의한다면 얼마든지 의견사항을 해소하고 북남관계의 대화를 이룩할수 있다.

오늘부터 오늘이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시대의 요구와 겨례의 지향에 맞게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할 때이다.

우리는 지난날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자세와 립장에서 북남판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책임적이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겨례의 지향을 똑바로 보고 반공화국대결관념을 버려야 하며 당국회담에 성실한 자세와 립장으로 나서야 한다.

머칠친 유령행각의 길에 오른 남조선집권자가 치마바람을 일으켜 외세에게 또다시 《북핵공조》강화를 청탁하는 무추한 놀음을 벌였다. 그가 하루가 멀다 하게 이 나라, 저 나라 수반들을 붙잡고 우리의 지위적행적력을 《위협》으로 걸고들며 《북핵문제》를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그 누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느니 하고 억스럽게 논것은 정말 꼴불견이었다. 남조선집권자는 우리의 병리관심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북핵포기》가 없으면 《유엔제재가 계속될것》이라는 고약한 나발까지 불어냈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미국에서 미상일정수와 함께 《북핵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6차회담수석대표회담을 연다 어쩔나 하며 분주함을 피웠다. 남조선당국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북핵포기》망상에 사로잡혀 벌인 이 추악한 구걸놀음이야말로 내외의 조소를 자아내는 부질없고 수치스러운 광대극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껏 외세에게 끈덕지게 빌붙으며 《북핵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애걸복걸 하였지만 얻은것은 쥐뿍도 없다. 그들은 오히려 세력의 면전에서 개교당신만 당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외세를 꺼늘어 버리는 반공화국핵소동에 눈심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선택한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끊임없이 승승장구해왔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우뚝서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아직도 어리석은 개공에 사로잡혀있다. 그러나 참피도 모르고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북핵공조》에 계속 구차스럽게 매달리지 않는다. 바로 그런것을 보고 먹지도 못할 제사에 절단 죽도록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북핵포기》에 대해 떠들썩한 자적도 없다. 폭로된바와 같이 얼마전 남조선외교부는 미국과 함께 제 4 7차 《년례안보회의》에서 무협적인 북침핵선제 공격본인 《4D작전계획》의 수립을 공표하고 그것을 《작전계획 5015》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내외호전세력의 반공화국핵위협소동이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외세의 핵으로 동족을 해치려고 지랄발광하는 자들이 변질나게 그 누구의 《핵포기》에 대해 운운하고있으니 얼마나 파렴치한자들인가.

북로 엄중제지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북침핵선제소발책들은 우리가 지위적행적력을 다져온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가를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에게 《북핵공조》를 청탁하기 전에 동족을 겨냥한 미국의 핵위협소동에 적극 편승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도발적망동부터 중지하여야 한다.

이런 해외행각기간 남조선집권자가 《북핵문제》를 평화중립도 해경》하였다든 따는것도 스쳐지날수 없다. 그의 수작질은 결국 지극히 이루지 못한 《북핵포기》>망상에 《제체통일》로 한사코 실현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한것이다. 여기서 변할배야 변할수 없는 그의 대결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 북남관계는 갈림길에 놓여있다. 대화로 북남판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대결의 격화로 북남판계가 다시금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지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알아들으리 만우 충고를 주었다. 남조선집권자가 불순한 야망을 품고 《북핵공조》의 간판밑에 외세의 공모탁을 강화할수록 북남관계개선의 길은 그만큼 멀어지고 대결과 긴장만이 고조되게 될것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아직도 《북핵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덜이 나고있는 반공화국 핵공조제정을 부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

그야말로 불쌍하고 가련하기 그지없다. 그쯤 수와 망신을 당했으면 이제는 《북핵포기》의 개공에서 꺼날때가 되지 않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제아무리 외세와의 《북핵공조》강화에 열을 올리려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절대로 흔들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그런 쓸데없는 놀음을 품을 들이기 보다는 차라리 쫓겨가려는 제 집안일이나 살피는것이 나을것이다.

조 남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중동지역에서 반테러전을 둘러싸고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5일 조선중앙통신사가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수리아에서 반테러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있고 예절트에서의 로씨야력거기공과사관과 프랑에서의 권속테러사건, 말리에서의 호텐인질사건들이 련이어 발생하는 등 테러와 반테러의 악순환으로 전세계가 테러공포중에 휩싸여있다.

이러한 가운데 합법적인 주

권국가인 수리아정부의 요구에 따라 반테러전에 참가하였던 로씨야폭격기가 튀르키예 공군에 의하여 격추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 나라들이 호상 비난전과 무력충동이 격화되는 등 사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사실 《이슬람교국가》를 조작해내고 중동지역을 그들이 마음대로 살판치는 테러의 판무장으로 되게 만든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번 로씨야폭격기격추사건 역시 모처럼 형성되어가고있는 국제적인 반테러협력분위

기를 깨버리고 저들의 중동지역배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교활하고 음흉한 속심의 산물이다.

민족간, 종교간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며 수리아를 둘러싼 정세악화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시종일관하다.

우리는 테러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실현에 리용하려는 시도들을 결절히 배격한다.

남조선인민들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투쟁 전개

남조선보수세력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 계층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련맹, 전국노동조합총련합을 비롯한 남조선 농민단체들은 11월 3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생존권 달성을 노린 《자유무역협정》체결책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언론이 주장

남조선언론이 주장

남조선언론이 주장

남조선언론이 주장

민중총궐기투쟁에서

민중총궐기투쟁에서

민중총궐기투쟁에서

민중총궐기투쟁에서

로씨야 대통령 연례서한 발표

로씨야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3일 연방회의에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이날 크레믈린에 모인 연방평의회 의원들과 국가회의 대의원들, 정부성원들, 헌법재판소와 최고재판소 및 증재판소 소장들, 지사들, 교파지도자들, 주요대중보도수단 책임자들이 앞에서 발표한 서한에서 그는 국제테러를 반대하여 수리아에서 싸우고있는 로씨야군인들에게 감사와 포시를 하고 악당들이 돈과 무기를 받으면서 힘을 키우고있다. 그들은 폭발물을 터

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며 사람들을 고문을 주어 공포심과 중요성을 불어넣어주고있다고 폭로단죄하였다.

우리는 악당들을 소멸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로씨야가 합법적인 수리아정부의 공식요청에 따라 군사작전을 벌일때 대한 결정을 채택한것은 바로 로씨야공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논쟁과 의견사항을 그만두고 단일한 반테러전선을 펼것을 국제공동체에 호

과적법안이면 정세악화

과적법안이면 정세악화

과적법안이면 정세악화

과적법안이면 정세악화

경찰의 폭압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선것을 선언

경찰의 폭압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선것을 선언

경찰의 폭압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선것을 선언

경찰의 폭압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선것을 선언

현 《정부》의 《로동개혁》은 로동개혁이다

현 《정부》의 《로동개혁》은 로동개혁이다

현 《정부》의 《로동개혁》은 로동개혁이다

현 《정부》의 《로동개혁》은 로동개혁이다

과 관련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과 관련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과 관련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과 관련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라오스에서 공화국창건 40돐 기념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2일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라오스주석 쉘람피 싸이낀이 당과 국가지도자들과 함께 여기에 참가하였다.

국기가 게양되었으며 쉘람피 싸이낀주석이 연설하였다.

당의 평등일에 지난 40년간 공화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 그는 이 모든것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당과 국가의 일

군들과 로병들, 인민들이 고귀한 생을 바친 결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평등적역할과 위력을 강화하고 주권기관들의 기능과 효과성을 높여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년간 7%의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하여 2020년까지 덜 발전된 나라들의 대열에서 벗어나는것이 총적프로그램으로 나르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를 위해 농업과 립업을 기본으로 틀어

로 선거되었다. 그는 최근 진행된 대법원에서 재판수의 지 지표를 받았다.

로 선거되었다. 그는 최근 진행된 대법원에서 재판수의 지 지표를 받았다.

로 선거되었다. 그는 최근 진행된 대법원에서 재판수의 지 지표를 받았다.

로 선거되었다. 그는 최근 진행된 대법원에서 재판수의 지 지표를 받았다.

로 동 개 약 지 지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로 동 개 약 지 지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로 동 개 약 지 지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로 동 개 약 지 지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복잡하게 번져지는 로씨야-튀르키예관계

복잡하게 번져지는 로씨야-튀르키예관계

복잡하게 번져지는 로씨야-튀르키예관계

복잡하게 번져지는 로씨야-튀르키예관계

가. 재양민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투표에서 참가자들의 98%가 로동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가. 재양민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투표에서 참가자들의 98%가 로동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가. 재양민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투표에서 참가자들의 98%가 로동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가. 재양민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투표에서 참가자들의 98%가 로동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로크 마크 크리스피안 까보레 부르끼나파소 대통령으로 선거

부르끼나파소에서 로크 마크 크리스피안 까보레가 대통령으로

부르끼나파소에서 로크 마크 크리스피안 까보레가 대통령으로

부르끼나파소에서 로크 마크 크리스피안 까보레가 대통령으로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철회 요구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철회 요구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철회 요구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철회 요구

여러 나라에서 시위

여러 나라에서 시위

여러 나라에서 시위

여러 나라에서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